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서울북부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인권보호관 박광현

전화 02-3399-4866/팩스 0502-193-2112

## 보도자료

2024. 1. 18.(목)

### 제 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

- 오늘(1. 18.) 서울북부지방검찰청(검사장 이진수)은 '24. 4. 10.(수)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「유관기관 대책회의」를 개최하였습니다.
- 검찰, 선거관리위원회, 경찰은 긴밀히 협력하여 ▲당선·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, ▲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, ▲선거 관련 금품수수, ▲공무원·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.
-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#### 1 회의 개요

- 일시·장소 : 2024. 1. 18.(목) 14:00~15:00, 서울북부지방검찰청
- 참석자 (총 21명)
  - 검찰(8명) : 형사5부장, 전담검사 2명, 수사관 5명
  - 선관위(6명) : 강북·노원·도봉·동대문·성북·중랑구 선관위 지도계장
  - 경찰(7명) : 강북·노원·도봉·동대문·성북·종암·중랑경찰서 각 지능팀장

## 2

## 주요 회의 내용

- 「중점 단속대상 범죄」에 대한 엄정대응
  - 선거 관련 폭력행위,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, 선거 관련 금품 수수, 공무원·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.

### 중점 단속대상 범죄

- 선거 관련 폭력행위 : ▲ 후보자, 선거사무장, 연설원, 자원봉사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·협박 ▲ 선거 관련 공무원·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·협박 ▲ 당내경선 관련 폭행·협박 ▲ 벽보·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등
-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: ▲ 생성형AI기술,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 ▲ SNS상 가짜뉴스,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▲ 허위사실공표 ▲ 후보자 비방 ▲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
- 선거 관련 금품수수 : ▲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▲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▲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·요구 등
- 공무원·단체 등의 선거개입 : ▲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▲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▲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

-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
  -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.
  - 특히 검찰과 경찰은 개정된 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선거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·교환하고,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·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.

### ○ 적법절차 준수 및 정치적 중립 유지

- 수사과정 전반에서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,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.
- 특히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고,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## 3 향후 계획

-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「선거전담수사반」을 편성하여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였고,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4. 10. 10.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.
- 검찰, 선거관리위원회, 경찰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신분·지위·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,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여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### 선거사범 신고센터

- ▶ 검찰 : 국번 없이 1301, 야간 (02)3399-4290
- ▶ 선관위 : 국번 없이 1390, 인터넷 신고 <http://www.nec.go.kr> (국민참여소통)
- ▶ 경찰 : 국번 없이 112, 인터넷 신고 <http://www.police.go.kr> (국민신문고민원)